

Masterpiece #4(37)

[36~37]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37.

In law, only a tiny group of thinkers(A) has actively pursued a fairly extreme line of argument: that we should formally recognise our commonality with other animals(A) and, therefore, have animals legally **reclassified**.

- (A) The relatively uncontroversial view(B) is that animals should remain a reasonably wellprotected form of **property (B)** they are protected by a range of animal welfare laws) and all human beings should remain persons.
- (B) Their dramatic aim(A) is to **shift** at least some animal species **into** the **rights-bearing**, and so human, category, and thus **alter**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.
- (C) But mainly this heroic attempt to reclassify the natural world(A), and our place within it, is seen as strange and **misguided**; to many jurists, probably the majority(B), it does not **call for** serious intellectual engagement. [3점]

* jurist: 법학자

- ① (A) - (C) - (B) ② (B) - (A) - (C)
 ③ (B) - (C) - (A) ④ (C) - (A) - (B)
 ⑤ (C) - (B) - (A)

★ 정답 해설: ③

주어진 글: ‘소수’의 사상가들이 우리와 동물의 공통성(commonality)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. 이 친구들과 대립되는 다른 사상가들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자. 그럼 각각 AB로 잡을 수도 있겠다.

(B) or (C): (B)에서 A 사상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준다. 동물도 인간과 ‘같은’ 권리가 있다는 것. (B)에서 이렇게 A 얘기를 마무리해주어야, (C)단락에서 But을 때리고 B 사상가들로 넘어갈 수 있겠다.

(A) or (C): (C)에서 A를 까면서 ‘다수’의 B를 등장시킨다. 그리고 동물을 인간고 똑같다,가 아니라 인간의 자산(property)로 보는 B 관점을 (A)에서 부연하며 마무리! 지문 논리가 아주 수능스러운 지문 :)

★ 순차적으로, 덩어리로 묶고, 정확하며, ‘한국말이 자연스러운’ 해석!

법에 있어서, 아주 작은 무리의 사상가들만이 상당히 극단적인 경향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 왔다: / 그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의 공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/ 따라서 물을 법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. / 그들의 과도한 목표는 적어도 몇몇 동물 종을 권리를 가진, 따라서 인간의 범주로 바꾸고 / 그리하여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개념상의 관계를 수정하는 것이다. / 그러나 대체로 자연의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(인간)의 위치를 재분류하려는 이러한 영웅적 시도는 / 낫설고 오도된 것으로 여겨진다; / 많은 법학자에게, 아마도 대부분(의 법학자)에게 있어 그것(그러한 시도)은 심각한 지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/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관점은 / 동물은 상당히 잘 보호된 소유물의 형태로 남아야 하며(그들은 다양한 동물 복지법에 의해 보호된다) / 모든 인간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

★ 영어는 결국 단어. 손으로 뜻 가리고 뜻 맞히기 계속 반복!

1. commonality	1. 공통성
2. reclassify	2. 재분류하다
3. uncontroversial	3. 논란의 여지가 없는
4. property	4. 자산
5. shift A into B	5. A를 B로 이동시키다
6. rights-bearing	6. 권리를 지닌
7. alter	7. 바꾸다
8. misguided	8. 오도된
9. call for	9. 요구하다